

남도문화 '웰 메이드 콘텐츠' 꽃 필까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남도에 훌쩍 빠지다' 첫 발 26명 기획자 참여...유배·판소리·섬 상품화 시도

“전라도의 재미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풍성한 남도의 문화자원들을 산업적 가치로 꽃 피우게 할 ‘콘텐츠 스타트업 인문 소양교육’이 시작돼 눈길을 끈다.

(재)전남정보문화진흥원과 대동문화재단·순천미디어인이 협력해 진행하는 남도투어 스토리콘서트 ‘남도에 훌쩍 빠지다’가 그것.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의 하나로 기획돼 지난 2일 유홍준 명지대학교의 오픈특강을 펼치며 첫 발을 뒀다.

사업은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이론특강, 1박2일 남도 팸투어, 워크숍 그리고 결과물을 선보이는 발표회 순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또는 전혀 모르고 있던 소중한 남도문화유산이 ‘웰 메이드 콘텐츠’로 탄생하는 여정이다.

이 같은 여정의 결과물은 4월6일 발표회 프로그램에는 작가·만화가·웹툰·VR제

작자·여행기획자 등 26명의 콘텐츠 기획자들이 참여한다.

먼저 23일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는 ‘콘텐츠 스타트업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남도스토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3월2일에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현장 팸 투어가 이뤄진다. 참여자들은 조상열 대동문화재단·장현필 순천미디어인 대표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남도문화를 탐사한다.

3월8~9일 첫 번째 투어에서는 남도의 유배문화·도자기·문학 작품의 흔적들을 좇고, 15~16일에는 동편제·서편제 등 소리의 성지들을 둘러본다. 마지막 23~24일은 해남 보길도, 완도 소안도·생일도 등 섬 문화를 찾아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여정의 결과물은 4월6일 발표회에서 공개된다.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진흥원과 대동문화재단·순천미디어인이 협력해 남도투어 스토리콘서트 ‘남도에 훌쩍 빠지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이광연의 모습

원은 우수작 5여개에 한해 실질적인 콘텐츠 상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선정작은 하반기 ‘인큐베이팅’을 통해 2019년에 시제품으로 시도민들을 만나게 된다.

조상열 대표는 “이번 답사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기발한 콘텐츠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영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남도의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게임·드라마·애니메이션·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새 생명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는 국비 48억·전남도 29억·나주시 29억 등 총 106억원 규모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사업이며 매해 20억씩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 진흥원은 이번 첫 시범운영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세라 기자 sera0631@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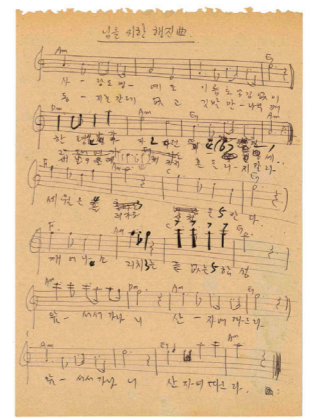
‘임을 위한...’ 관현악곡으로 재탄생

대중화·세계화사업 추진...‘5·18 기념음악회’서 초연

오월 추모곡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양한 형태의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9년 만에 다시금 제창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민주주의의 상징곡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1980년대 민중의 뜨거운 삶과 시대정신이 담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작, 광주의 소중한 가치를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대중화·세계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총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먼저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시비 5억을 확보해 세계인들이 접하기 쉬운 보편적인 감성의 언어인 관현악곡으로 제작, 국내·외 연주회 등을 통해 대중화·세계화를 도모한다.

지난 2월 관현악곡 제작추진을 위해 총 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작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계획은 교향곡 제작이었으나, 교향곡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향후 작품 활용 면에서 광범위한 관현악곡 유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5가지 유형(색선)의 관현악곡 제작으로 결정됐다.

관현악곡 제작방식은 크게 작품공모와 위촉(지정)으로 나뉘며, 작품공모는 3월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한 관현악곡 작품(작곡) 국내·외 공모를 통해 10월 중 확정한다.

관현악곡 위촉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38주년 5·18 특별 기념음악회 때 관현악곡 유형 중 ‘서곡’과 ‘교향곡’을 초연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나머지 3가지 유형은 8월까지 국내·외 위촉 작곡가의 작곡을 완성해 9월~10월경 국내·외 주요도시 순회공연에 나선다.

5·18 특별 기념음악회에서 초연될 관현악곡 ‘임을 위한 서곡’은 황호준 작곡가가, ‘교향곡’은 김대성 작곡가가 위촉 작곡가로 선정됐다.

향후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2019년~2022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형식의 문화콘텐츠제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은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로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라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화콘텐츠 제작·보급·활용을 통해 예술과 산업이 연계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라 기자 sera0631@gwangnam.co.kr



역사 속 한국의 정신성 화폭서 구현 | 독립 전남도옥과미술관 올해 첫 외부기획전 정현숙展 3월1일부터 주시계 대표작 출품



'Before and After'

도립 전남도옥과미술관이 올해 첫 외부기획전을 연다. ‘역사에 빛을 더하다’라는 타이틀로 3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열릴 정현숙 개인전이 그것.

전통에 대한 영입성과 수행과도 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예술지평을 확장해 오고 있는 작가는 무엇보다 사라져 가는 역사 속 한국의 정신성을 화폭으로 끌어들이며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작가는 자가와 스와로브스키 등 전통과 현대적 물성이 아우러지는 조화로움을 통해 조형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문화재인 석가

탑, 반가사유상, 백자 등의 소재에 주목해 온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삼라만상 윤회의 순환원리를 담은 ‘Before & After’ 시리즈 중 ‘월’을 비롯해 ‘달 향아리’와 ‘불상’ 시리즈 등 주시계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정현숙 작가는 지난 2000년 ‘Before and After’ 시리즈 첫 발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빛을 더하다’라는 조형 세계에 천착해 오고 있다.

전시기획자인 김현경씨는 작가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 속에 나와 너의 존재를 캔버스에서 숨을 쉬게 함으로써 송고하고도 정당한 길이의 한국미와

답백하고도 청아한 한국인의 울골은 심성을 녹여내어 승화시킨 찬란한 빛과 역사의 숨결이 아우러진 화폭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현숙 작가는 이화여자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 개인전 53회와 국내외 그룹전 300여회를 출품했으며, 할라보(아모레퍼시픽 헤라)와 광고(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부문에서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국미술작가상과 정작미술상, 마니프 특별상, 한국현대미술제 초대작가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현재 대전대학교 현대조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공금증 해소

광주민속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내달부터 12주 과정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제23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 민속박물관대학은 ‘한국의 유산 시리즈 V-한국의 세계유산’이라는 타이틀로 국내 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오는 3월9일부터 5월25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이뤄진다.

박물관대학은 ‘문화유산의 이해’(2014)를 시작으로 ‘문화유산으로 본 한국 문화’(2015), ‘문화유산으로 본 지역문화’(2016), ‘한국의 자연유산’(2017)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올해는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강좌가 열리게 됐다.

강좌는 한필원 교수(한남대 건축학)의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방안’, 노현균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팀장의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강민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황정하 청주고신쇄박물관 학예실장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강좌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물관 대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 소통참여-통합예약신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오는 3월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신청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된 문화재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201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보가 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ra@gwangnam.co.kr

LOTTE CINEMA 증장로관 (주)제일극장

- 프리미엄석, 전 좌석 전용 커피숍 보유
- 신동아, 동아, 파레스, 황금주차장이용가능
- 단체 및 대관문의 070-4940-0523
- 스폰서 마케팅총괄(062-222-7733)

MEGABOX

7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단체 및 대관 문의 ARS)1544-0070 www.megabox.co.kr

광주/전라지역 하남

10개 상영관, 1635석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

넓고 평안한 좌석, 배미룸 설치(8, 9, 10관)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시사회 등 다양한 행사유치

전남 서부권 교통의 매카, 멀티플렉스내

매가박스 콜롬버스(상무점)

1관 블랙 팬서(12세)
2관 홍부(12세)/언프리티 소셜 스타(15세)/반딧불이 단던(전체)
3관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12세)
4관 블랙 팬서(12세)/반딧불이 단던(전체)
5관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12세)
6관 블랙 팬서(12세)
7관 골든슬럼버(15세)
8관 명탐정 코난: 감벽의 관(12세)/반딧불이 단던(전체)/인사이드4: 라스트 키(15세)
9관 골든슬럼버(15세)/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청불)/코코(전체)/그것만이 내 세상(12세)
10관 홍부(12세)

매가박스 콜롬버스(하남점)

1관 블랙 팬서(12세)
2관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12세)
3관 골든슬럼버(15세)
4관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12세)
5관 골든슬럼버(15세)
6관 블랙 팬서(12세)
7관 홍부(12세)
8관 그것만이 내 세상(12세)
9관 명탐정 코난: 감벽의 관(12세)/지구: 놀라운 하루(전체)/언프리티 소셜 스타(15세)
10관 블랙 팬서(12세)/반딧불이 단던(전체)

장수비결!
성인병 노화방지는

-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
- 미세먼지 예방 입니다

북교당 한약방

변역력 증진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무름사랑

한수유두중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30포 → 6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_369_9227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시·군 영업점 모집!!